

정부, 비대면 시대 부작용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해 극복 추진

등록 2020-08-27 14:54:43

건강한 디지털 공동체 새로운 대한민국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는 비대면 사회에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논의·협력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이 전면화되고 가정 내 TV,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대면 방식은 편리함·안전함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

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위정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 규제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간 배려와 존중, 올바른 소통 활성화와 공동체성 확립이라는 근원적 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결과물을 다 함께 누리고, 나이와 계층, 지역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미디어 이용 및 제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을 4대 전략과제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대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미디어교육 거점시설의 전국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미디어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교육원을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된 교육 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을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개방하기로 했다.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

정부는 전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대에 유아부터 어르까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3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p>01 허위정보 판별교육 강화</p>  <p>전문가 영역 ▶ 일반시민 영역</p>	<p>02 미디어 기술·텍스트 이해 교육 확대</p>  <p>추천 영상 시청 ▶ 추천 알고리즘 알고 보기</p>	<p>03 팩트체크 교육콘텐츠 제작·보급</p>  <p>교육자용 학습자료 ▶ 수강생 참여형 학습 자료</p>
----------------------------------------------------------------------------------------------------------------------------------	-------------------------------------------------------------------------------------------------------------------------------------------------	------------------------------------------------------------------------------------------------------------------------------------------------

4 배려하고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p>01 비대면사회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p>  <p>디지털 역기능 ▶ 디지털안전사회</p>	<p>02 지역 공동체미디어 지원 확대</p>  <p>개인 중심 미디어 ▶ 공동체미디어 활성화</p>	<p>03 일상생활 속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p>  <p>디지털 시민성 전국민 공감 확산</p>
----------------------------------------------------------------------------------------------------------------------------------------	-------------------------------------------------------------------------------------------------------------------------------------------	------------------------------------------------------------------------------------------------------------------------------------------

[서울=뉴시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교과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검증 대상 제시 및 팩트체크 과정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SNS·유튜브 등 인터넷서비스의 추천원리(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을 제고한다.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 기기(스마트폰) 사용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측정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도 수립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누구도 미디어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